『中國學』, 第65輯 (2018.12) DOI http://dx.doi.org/10.14378/KACS.2018.65.65.22
pp.379-401 ISSN : 1229-9618

중국외교 3.0: 시진핑 시기의 변화와 지속*

리 단**

【목 차】

Ⅰ. 서론
Ⅱ. 중국의 국제질서관의 변화
1. 마오쩌둥: 혁명론과 국제질서에 대한 수정주의 추구
2. '덩샤오핑 시대': 평화주의와 국제질서에 대한 참여
Ⅲ. 시진핑 시대의 중국외교: 운명공동체와 신형국제관계
1. 인류운명공동체의 창의
2. 신형국제관계의 구축
Ⅳ. 결론: 시진핑 시기 중국외교의 변화와 지속

【초록】
이 연구는 중국의 국제질서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시진핑 시기 중국의 외교정책데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중국 외교의 '변화'와 '지속'이라는 측면을 밝히고자 하였다. 전체적으로 시진핑 시기의 중국은 대외적으로 소위 핵심이익과 관련된 의제를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저비용의 안정적인 국제관계를 지향해 가야 하는 입장에 있다. 따라서 큰 틀에서 중국은 기존 지도부시기와의 연속성을 보여주고 있으나 조정적 국면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즉 시진핑 시기는 과거 어느 시기보다도 강한 자신감으로 피동적 대응에서 선명하고 적극적인 태세로 전환하였다. 이것은 우선 외교목표 설정의 명확성에서 나타났다. 시진핑 시기의 중국은 인류문명공동체와 신형국제관계 구축을 내세워 '중국 특색의 대국외교'를 제기 및 전개하고 있다. 둘째는 기존의 상호신뢰 강조에 비해 공동이익을 강조하였다. 셋째, '적극적인 유위관(積極的有爲觀)' 즉 역할론 강조이다. 향후 중국의 이러한 '분발외교'는 주변국가와의 '친(親), 성(誠), 혜(惠), 용(容)'의 신뢰여부, 일대일로를 비롯한 글로벌 전략에서 강대국과의 이익의 조화여부 및 역내 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관건이 될 것이다.

【키워드】 시진핑, 국제질서관, 혁명, 평화, 운명공동체, 신형국제관계, 변화와 지속성

* 이 논문은 2017-2018년도 부경대학교 자율창의과제 지원에 의해서 연구되었음. (과제번호: CD20170498)
** 부경대학교 국제지역학부 (lidan@pknu.ac.kr)

Ⅰ. 서론

세력전이론(power transition)에 따르면 국제체제는 어느 정도의 질서를 내포한 위계체제이며 지배국가-강대국-중견국-약소국으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국제체제는 '만족 국가군'과 '불만족 국가군'으로 나뉘는데, 불만족국가군의 어느 한 강대국이 급성장하여 지배국가의 도전세력으로 등장할 때 무력충돌의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어 체제위기가 발생한다.[1] 중국은 약 40년의 개혁개방으로 G2시대의 막을 올렸다. 따라서 그 동안 중국은 '경제적 거인'인 것에 비해 '전략초보(戰略新手)'단계에 머물렀다. 즉, 거대한 경제적 우세를 대외전략으로 효과적인 전환을 이루지 못했다는 비판의 목소리 속에서 2008년 이후 중국의 대외전략은 적극적인 태세를 보였으며, '공세외교'라는 평가를 받았다.

시진핑은 대외관계의 3관 즉, '역사관(歷史觀)', '대국관(大局觀)', '역할관(角色觀)'을 제시하여 국제무대에서 '신발전관(新發展觀)', '신안보관(新安佺觀)', '정확한 의리관(正確的義利觀)', '글로벌 거버넌스(全球治理)', '국제 법치관(法治觀)'으로 주동적, 적극적 외교전략을 펼치고 있다.[2] 현재 중국은 '분발유위(奮發有爲)'를 외교기조로 미국, 유럽, 러시아 등 강대국과의 '신형대국관계'의 재설정, 주변국과의 대외직접투자(Outbound Direct Investment, ODI)와 공적개발원조(Oversea Development Assistance, ODA)를 통해 협력관계를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었다.[3] 중국 외교의 이러한 강세적인 성향은 '패러다임 변화에 준하는 변화가 진행 중'이며[4] '질적인 변화(質的變化)'를[5]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을 만큼 변모하고 있다.

실제로 중국의 부상과 함께 중국의 외교에 관한 담론과 논쟁은 끊임없이 진행되어 왔다. 1980년대 말부터 시작된 동구 사회주의권의 몰락과 소련의 해체, 그리고 1989년 천안문 '정치풍파' 등 국내외 전략적 환경을 고려하여 덩샤오핑은 '韜光養晦, 有所作爲' 전략을 제시하였다. 이 시기 중국외교는 '불간섭(不干涉)', '불대항(不對抗)', '비결맹(不結盟)', '불당두(不當頭)' 등 내용을 외교의 기조로 삼았었다. 21세기 초 WTO가입으로 세계체제로 편입한 중국은 '도광양회' 전략이 21세기 변화 된 국제정치 환경에 적극적인 대응 여부를 둘러싸고 이른바 '역할론'에 대한 논쟁이 진행이 되었다. 예컨대, 예즈청(葉自成)은 중국의 역할을 영역별로 구분하는 것과 지구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방관자의 입장을 취하고, 동아시아지역에서는 앞장을 서서 주도권을 장악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6] 이 번 논쟁에서는 '도광양회' 논조가 여전히 주

---

1) 김성한, 「아태지역에서의 G2 체제: 미.중 협력과 갈등 가능성 평가」, 『전략연구』, 통권 제60호, 2013. 11, p.109.

2) 徐宏, "习近平外交思想引领中国特色大国外交迈上新征程", 「光明日报」, 2018.07.04. (中国社会科学网, http://www.cssn.cn/gjgxx/gj_zgwj/201807/t20180719_4506135.shtml)

3) 홍건식, 「시진핑의 중국몽과 정체성 정치」, 『국제정치논총』, 제58집 1호, 2018, pp.112-116.

4) 김홍규, 「시진핑 시기 중국 외교와 북중관계」, 「jpi 정책포럼」,2015.04, p.2.

5) 阎学通, 『超越韬光养晦』, 天津出版传媒集团, 2016, p.72.

6) 叶自成, 「21世纪初的新形势与中国大国战略新概念」, 『国际政治研究』, 2000年 第6期, pp.29-31. 叶自成에 따르면 중국은 경제적으로 빠른 시일 내 매커니즘의 전환으로 서구가 주도하는 시장체제로 참여, 정치적으로는 미국이 주도하는 글로벌 체제로 참여, 국제기구에 적극 참여하여 중국의 국제적 위상을 향상시키고 주류국가로 부상, 동아시아 지역에서 주도권을 쟁취하고 필요할 때 앞장서야 하며 글

류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논쟁으로 지역 '책임대국(責任大國)론'이 대두되었으며 이는 중국의 외교실천에서 관철되었다. 2002년말 2003년부터 한반도에서 불거진 제2차 핵위기에서 중국의 '셔틀외교'를 통한 중재자, 균형자 역할 추구가 바로 그러한 맥락이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의 외교전형에 대한 토론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중국 외교에 대한 담론은 '목표의 모호성', '대국으로서의 우유부단' 등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으며 중국은 급부상에 즉 '경제 거인'에 걸맞은 대전략(大戰略)의 제시가 시급하다는[7] 지적과 함께 여러 가지 대안제시가 있었다. 왕이쩌우(王逸舟)는 일직히 중국의 외교전형을 연구하는 학자이다. 왕이쩌우는 그 동안 중국학계가 외교전형에 대한 견해를 '글로벌 거버넌스(全球治理)', '해외 이익설(海外利益說)', '신형주권론(新型主權論)', '무력신중론(愼用武力論)', '왕도패권론(王道覇道論)', '타성 억제설(抑制惰性)', '전략강역론(戰略疆域論)', '사회민의론(社會民意論)', '국제공관론(國際公關論:public relations)', '이익계층론(利益分層論)', '복잡한 현상론(複雜現象論)', '세계대세론(世界大勢論)' 등으로 분류하였다.[8] 미국학자 썬다웨이(沈大偉, David Shambaugh)는 중국 외교전형을 학파별로 '본토파', '현시주의파', '대국파', '아시아 제1파', '글로벌 남방파', '선택적 다자주의'와 '글로벌주의' 등으로 구분하여 중국외교 연구가 '분극화(極化)'를 형성하였다고 주장하였다.[9]

쯔오커진(趙可金)는 이러한 외교전형에 대한 주장을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10] 첫 번째는 '도광양회, 유소작위' 전략이 여전히 지속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중국은 이슈문제에 대한 인내와 양보하는 전략을 단기간 내 중대한 조정을 해서는 안 되며 '도광양회, 유소작위' 전략으로 국제사회에서 '4불원칙' 즉 '깃발을 들지 않고(不扛旗)', '앞장을 서지 않고(不當頭)', '적을 만들지 않으며(不樹敵)', '대항을 하지 않는다(不對抗)'는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중국은 외교전략에 대한 적극적으로 변혁으로 국제관계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중국은 국력의 부상과 함께 외교정책을 적절히 조절해야 하며 국제신용을 우선순위에 놓고 국제책임을 감당해야 한다. 중국은 중요한 세력과 결맹을 해야 하며 보다 많은 전천후적,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결성하여 중국의 발언권의 확보와 중국식 발전모델의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 주장은 안정 속에서 진보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은 새로운 정세 하에 유소작위를 추구해야하며 글로벌 금융, 기후변화, 해양문제, 지역적 이슈문제 등에 대하여 건설적인 규칙의 창립을 추동하고 중국의 이념과 가치관을 국제규범으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담론 속에서 지속적인 조정을 겪었던 중국외교는 시진핑 시기에 접어들면서 적극적인 개입과 능동적 태세를 보여주고 있다. 중국은 글로벌 차원에서의 국익 추구를 위하여 '지역대국'에서 '글로벌 국가'로 나아가 '세계적 강대국'으로 성장하는 데 비전을 두고 있으며 이러한 중국의 전략적 지향은 글로벌 수준으로 확장될 것을 전망된다.[11] 따라서 시진핑 시기

로벌 사무에서 방관자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7) 赵可金,「中国崛起与对外战略调整」,『社会科学』, 2010年 第9期, pp.3-4.

8) 王逸舟,「中国外交转型」,『学习与探索』, 2008年 第5期, pp.57-67.

9) 赵可金,「建设性领导与中国外交转型」,『世界经济与政治』, 2012年 第5期, p.49.

10) 赵可金, 위의 논문, pp.49-50.

11) 门洪华,「两个大局视角下的中国国家认同变迁(1982-2012)」,『中国社会科学』, 2013年 第23期, pp.54-66.

의 중국 외교 방향의 설정이 주목을 받았다.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시진핑 집권 이후 중국의 외교가 추구하는 목표를 밝히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이 연구는 우선 중국의 국제 질서관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그 이유는 국제질서관은 국가가 국제질서에 대한인지와 자국이 구상한 이상적인 국제질서에 대한 추구이다. 국제질서관은 외교 전략의 핵심요소로서 외교정책의 중요한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중국의 국제질서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이 연구는 시진핑 시기 중국의 외교정책의 분석을 통해서 중국 외교의 '변화'와 '지속'이라는 측면을 밝히고자 하였다.

Ⅱ. 중국의 국제질서관의 변화

국제질서관은 행위자가 국제질서에 대한 기본인식으로서 일반적으로 몇 가지 패턴으로 구성된다. 하나는 현존 국제질서에서의 강대국과 자국에 대한 평가이다. 다른 하나는 국제적 시스템에서 자국 및 자국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타 행위자에 대한 자리매김, 그리고 그들과의 관계이다. 셋째는 국가가 국제사회에서 자국의 정체성 형상화 및 자국이 국제질서 속에서 현재 내지는 미래의 이익의 실현이다.[12] 현대 중국의 국제질서관은 바로 이러한 인식에서 형성되었다. 건국 초기 중국은 서구 중심적 자본주의 국제질서에 대한 전면부정으로부터 평화공존 원칙으로 발전 하였으며 나아가 '공정한 신 국제 정치경제 질서의 건립(建立公正的國際政治經濟新秩序)' 제안 등 끊임없는 변화와 발전적 태세를 보여 왔다.[13]

1. 마오쩌둥: 혁명론과 국제질서에 대한 수정주의 추구

1) '일변도(一邊倒)' 전략의 제시

중화인민공화국 건구 이후 장제스(蔣介石) 정권이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에서 합법국가로 안정을 받은 반면 사회주의 중국은 국제질서에서 배제되었다. 건국 초기 마오쩌둥을 '일변도' 전략으로 자본주의 국제질서에 대한 전면부정과 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 국제질서를 따르기로 하였다.[14]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초기, 헌법의 성격을 띤 '공동강령(共同綱領)'은 '중화인민공화국 외교정책의 기본원칙은 국가 독립. 자주 및 영토의 완전을 보호하기 위함이며 중국은 국제사회의 영구적 평화와 각 국가 인민과의 우호협력을 옹호하고 제국주의 침략과 전쟁을 반대하며', '중국은 우선 소련과 인민민주주의 국가, 그리고 압박을 받은 민족을 연합하여 공동으로 제국주의 침략을 반대하며 세계의 영구적 평화를 수호 한다'[15]라는 외교정책 기조를

12) 安善花. 张益姝, 「当代中国国际秩序观的构建及其实践战略——基于近代历史记忆和现实国际环境的研究分析」, 『大连大学学报』, 第36卷 第1期, p.92.
13) 叶自成·蒋立群, 「新中国国际秩序观的变迁」, 『党的文献』, 2011年 第6期, p.72.
14) 叶自成·蒋立群, 위의 글, p.72.
15) 『中华人民协商会议共同纲领』, 제1장 총강 내용을 참조 정리.

천명하였다.

1949년 11월 8일 외교부 성립대회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의 초대 외교부장인 쩌우언라이(周恩來)는 '신중국의 외교(新中國外交)'라는 연설에서 중국의 외교임무를 '소련과 인민민주주의 국가와 형제 우의를 결성하며 제국주의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 하였다.[16] 중국은 서구열강이 무력으로 중국에 가한 일련의 불평등 조약이 중국 주권과 국익에 대한 침해임으로 반드시 청산하겠다는 입장을 역설하였으며 '새로 부뚜막을 쌓겠다는(另起爐灶)' 전략을 제시하여 중국식 이념외교를 펼치게 되었다.

마오쩌둥 시기 중국은 국가주권의 평등. 영토의 완전 등 측면에서 서구 중심적 국제질서를 인정하였으나 전체적으로는 부정적인 태도를 취했다. 이 시기 중국의 국제질서관은 형명과 전쟁으로 자본주의 세계를 전복시키고 새로운 세계를 건설하려는 것이었다.[17] 즉 사회주의진영에서 소련의 주도적 위치를 인정, 미국 주도의 자본주의 진영과의 대립, 사회주의 국가 간의 주권 독립 수호와 협력, 그리고 신흥 국가의 민족 독립운동지지 등이다. 이에 근거하여 중국의 대외정책과 외교관계는 동일 이념권에서는 대소련관계, 대항적인 세력관계에서는 대미국관계, 그리고 여타 지역과의 관계에서는 제3세계가 일차적인 고려의 대상이었다고 볼 수 있다.[18] 건국 초기 중국의 국제질서관은 '친소(親蘇)'와 '반미(反美)'로 요약이 된다.

2) '평화공존 5원칙'과 '중간지대론'

중국의 일변도 전략은 어는 특정국가에 절대적 복중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19] 건국 초기부터 중국은 주권의 독립과 국가 간의 평등을 끊임없이 강조하였다. 마오쩌둥은 외국 정상들과의 만남에서 국가는 대소를 막론하고 평등하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였다. 예컨대 1954년 마오쩌둥은 미얀마 총리와의 회담에서 중국은 '대국의 특별한 권리를 반대하며 강대국은 높은 지위 약소국은 낮은 지위에 놓고 평가하는 것은 제국주의적 사고방식'이며 '강대국은 약소국에 대하여 경제적 착취, 정치적 압박, 그리고 자국의 의지와 정책과 사상을 약소국에 가해서는 안되며 … 강대국이 봉건적 가부장과 같이 다른 국가를 자제(子弟)로 생각해서도 안 된다'고 하였다.[20]

1950년대 중국은 초기의 국민당정권이 남긴 유산에 대한 청산과 민생회복을 통해 국내의 정치적, 사회적 안정의 초석을 마련하였다. 국제적으로 중국은 사회주의진영의 국가로부터 인정을 얻었으며 미얀마, 파키스탄, 아프카니스탄 등 주변국가와의 관계 개선으로 어느 정도 국제환경의 완화를 실현하였다. 이러한 변화된 국내. 국제환경에서 자신감을 가지게 된 중국은 대외전략과 정책을 조절하였다. 1953년 저우언라이 총리는 인도대표단을 접견하는 자리에서

---

16) 『周恩来外交文选』, 中央文献出版社, 1990, pp.1-2; 张少冬, 「周恩来外交思想中的国际秩序观」, 『社科纵横』, 总第33卷 第1期, 2018.01, p.27에서 재인용.

17) 叶自成·蒋立群, 앞의 글, p.72.

18) 박병광, 「시진핑 지도부의 등장과 중국의 대외정책」, 『전략연구』 통권 제60호, 2013.11, p.142.

19) 张历历, 『当代中国外交简史』 上海人民出版社, 2008, p.8.

20) 『毛泽东外交文选』, 中央文献出版社、世界知识出版社, 1994年版, pp.191-192; 俞沂暄, 「中国的国际秩序观」, 『复旦国际关系评论』第十四辑, p.312에서 재인용.

처음으로 '영토와 주권의 상호 존중(互相尊重主權和領土完整), 상호불가침(互不侵犯), 상호 내정불간섭(互不干涉內政), 호혜평등(平等互利), 평화공존(和平共存)' 이른바 '평화공존 5원칙'을 제시하였다. 1954년 6월 중국과 인도, 중국과 미얀마의 연합성명에서도 평화공존 5원칙을 제창하였다. 1955년 4월 18일 인도네시아의 반둥에서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29개 국가 대표단이 참석하는 '아시아-아프리카 회의'가 개최되었는데 저우언라이 총리는 '구동존이(求同存異)'의 호소와 함께 평화공존 5원칙을 재차 천명하였다. 1950년대부터 평화공존 5원칙은 중국외교의 지도지침으로 대외관계의 초석이 되었다.

한편 1950년대 중반부터 잠재되었던 중·소 갈등이 1956년 소비에트 20차 대표대회를 계기로 공개적으로 악화되면서 중국은 공공연하게 소련을 '수정주의'라고 비판하였다. 이에 따라 중국은 양극 체제의 틀에서 벗어나기 위한 '3개 세계론(三个世界劃分)'을 설파하였다. '3개 세계론'의 취지는 미국과 소련이 패권경쟁을 하는 국제구조를 대비한 것이며 그 목적은 강대국 및 패권국가의 갈등에 대한 활용으로 중국의 국가 이익을 수호를 하는 동시 비교적 완화된 국제관계 형성에 데 있다.[21] 마오쩌둥 시기 중국외교는 혁명과 국제외교관례 간에 미약한 '이중성'을 보였으나 혁명과 투쟁이 압도적이었다. 이 단계의 중국외교는 '시작단계'에 처해 있었다.[22]

2. '덩샤오핑 시대': 평화주의와 국제질서에 대한 참여

1) 국제체제 인식과 '신 국제 정치경제 질서' 제안

(1) 국제체제 인식

1978년 중국공산당 11기 3중 전회는 중국이 '계급투쟁 중심'에서 '경제건설 중심'으로 전환의 기점이 되었다. 통상적으로 덩샤오핑, 장쩌민, 후진타오 집권까지의 중국을 '덩샤오핑 시대'로 구분한다.[23] 1978년에 복권을 한 덩샤오핑은 '평화'와 '발전'을 시대발전의 양대 주제로 제시하였는데 이는 1987년에 "중국공산당 제13차 당대표대회 보고"에 기재하였다.[24] 중국은 평화와 발전이라는 시대적 인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역사적 시기에 걸맞은 대외정책을 "독립자주 대외정책의 견지", "중국은 결코 어떤 대국이나 국가집단의 압력에 의존 또는 절대 굴복하지 않은다"라는 기조를 강조하였다.[25] 개혁·개방 이후 중국은 기존의 혁명론에 근거한 '적', '아' 논리에서 벗어나 '건설적, 발전적 사고'로 외부 환경을 평가하였으며 1980년대 중국의 외교는 국제사회에서 '친구 찾기(找朋友)'를 시작하였다. 이것은 가능한 한 많은 '친구'를

---

21) 仇华飞, 앞의 책, p.58.
22) 王逸舟, 「中国外交六十年」, 『江苏社会科学』, 2009年 第6期, pp.2-3.
23) 王逸舟, 위의 글, p.3.
24) 韩召颖·姜潭, 「改革开放以来中国外交理念的演进——基于中国共产党全国代表大会政治报告的分析(1982-2017)」, 『南开学报(哲学社会科学版)』, 2018年 第1期, p.13.
25) 刘建飞, 「改革开放与新中国外交」, 『中共党校学报』, 第19卷 第1期, 2015.02, p.109.

쟁취하여 경제건설에 필요한 외교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

(2) 신 국제 정치경제 질서 제안

1984년 4월 덩샤오핑은 부라질 총리를 회견 하는 자리에서 '신 국제 정치경제 질서의 건립'을 강조하였다. 덩샤오핑은 신 국제 정치경제 질서 건립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는데, 이는 '세계는 많은 문제를 직면하고 있는데 평화문제는 그 중의 하나이다. 평화를 쟁취하려면 패권을 반드시 반대해야 한다. 남북문제도 시대적 과제 중의 하나인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세계경제 발전에 지장을 줄 것이다.'[26]라는 것이다. 덩샤오핑의 이러한 주장은 외국 수뇌와의 만남에서 끊임없이 강조되었다. 1988년 9월 덩사오핑은 스리랑카 총리와의 만남에서 '현재 국제경제 신질서의 건립과 국제정치 신질서의 건립이 필요', 같은 해 12월 인도 총리와의 만남에서 '새로운 국제경제 질서와 새로운 국제정치 질서의 건립은 시급하다' 등 중국의 입장을 재차 강조하였다.[27]

덩샤오핑의 신 국제 정치경제 질서관은 중국의 후계 지도자들로부터 계승과 발전되었다. 1992년 중국공산당 14차 대표대회는 '평화공존 5원칙을 기석으로 평화(和平), 안정(穩正), 공정(公正), 합리(合理) 적인 신국제질서'를 제시하였으며, 1997년 15차 당대표대회는 '국제신질서는 평화공존 5원칙을 토대로 해야 하며 이는 유엔헌장의 원칙과 취지에 부합'한다고 주장하였다. 2002년 중국공산당 제16차 대표대회는 '국가는 정치적으로 상호존중, 공동협상을 해야 하며 자국의 의지를 타국에게 강요해서는 안됨; 경제적으로 상호촉진. 공동발전을 해야 하며 빈부격차를 조성해서는 안됨, 문화적으로 상호참조, 공동번영을 해야 하며 타민족의 문화를 배척해서는 안됨, 안보적 측면에서는 상호신뢰, 호혜, 평등 및 협력의 신안전관을 수립해야하며, 대화와 협력으로 분쟁을 해결해야 하며 무력을 사용하거나 무력으로 위협을 가하는 것은 안됨' 등 내용으로 그 동안의 신 국제 정치경제 질서를 구체화시켰다. 2007년 중국공산당 제17차 대표대회는 중국이 구상 한 이상적인 국제질서관을 '영구적 평화와 공동번영의 조화세계'로 규명하였으며 중국은 건설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는 역할론을 공공연하게 제시하였다.

요컨대, 개혁·개방 이후 중국이 국제질서에 대한 인식은 부정에서 인정으로 전환하고 있었다. 1982년 중국공산당 제12차 대표대회는 '기존 불평등한 국제경제관을 타파하고 국제 경제의 새로운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투쟁'이라는 인식으로 '타파', '투쟁'이 키워드였다. 중국공산당 제15차 대표대회는 현재 국제질서를 '국제정치경제 낡은 질서'라는 표현과 함께, 이 체제는 '불공정하고 불합리'라는 평가를 하였으며 국제질서를 낮게 평가한 것이다. 그러나 제 17차 전당대는 '국제정치경제 낡은 질서'라는 표현이 언급되지 않은 채, 중국은 '국제질서를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추동할 것이다'라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중국이 국제질서에 대한 인식이 전면부정으로부터 점차적인 인정으로 전환하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28] 전체적으로 이 시기 중국은 '인정'과 '불만'으로 국제질서를 평가하였으며 국제정치경제

---

26) 『邓小平文选』, 第3卷, p.56; 陈少铭, 「邓小平与改革开放以来中国外交战略的确立」, 『中共党史研究』, 2014年 第10期, p.35에서 재인용.

27) 宫力, 「中国国际秩序观的演进与战略选择」, 『现代国际关系』, 2014年 第7期, p.34.

신질서의 추진을 중국의 책임과 의무로 간주하여 이러한 질서에서의 중국의 자주성 수호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29]

3) 다자주의와 국제질서에 대한 참여

마오쩌둥 시기 중국의 다자외교는 극히 제한적이었다. 이시기 중국은 중립적인 국제기구에 대한 참여를 시도하였으며 (1950년대 중국은 세계위생기구에 신청서 제출) 그 범위는 아시아, 아프리카와 관련된 국제기구였다. 이 시기 중국은 국제회의에 참석하여 중국의 외교정책을 설명하는데 중점으로 두고 다자외교를 반제국주의. 반패권주의 무대로 활용하였다.[30] 1970년대 중국은 중소관계 악화로 소련을 주적으로 인식하여 '반소' 통일전선 건립에 주력하여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시도하였다. 이는 중국과 서구 국가 간의 관계 개선에 적극적인 역할을 미치게 되었다. 중국은 1971년 유엔에 가입하여 정치대국으로서 인정을 받았다. 1971년 11월 24일부터 1976년 12월 22일 안보리의 158회 결의 중 중국의 미투표율이 29%(46회)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중 투표율이 가장 저조했으며[31] 이 기간 중국은 거부권보유를 적극 활용하여 미국 등 강대국과 개도국 사이에서 중간자 역할을 자임하고 실익 추구전략을 도모하였다.[32]

1980년대 후반부터 중국은 국제체제를 다극화로 인식해 왔으며 중국이 중요한 '한극(一極)'이라고 판단을 하였다. 이에 따라 중국은 국제체제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33] 덩샤오핑은 '미·소 양국의 독점 상황이 변화되고 있으며 세계는 다극(多極)으로 발전 하는 데 중국이 한 극을 차지하며', 중국은 '국제문제에서 무소작위(無所作爲)가 불가능하며 무엇이던 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새로운 국제 정치경제 신질서를 추동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34] 따라서 1980년대 초부터 중국의 외교는 이념을 지침으로 하였던 이상주의 편중에서 현실주의로 치우치게 되었으며 대외정책은 강한 국력을 바탕으로 국제질서를 구축하려는 외교적 노력에 주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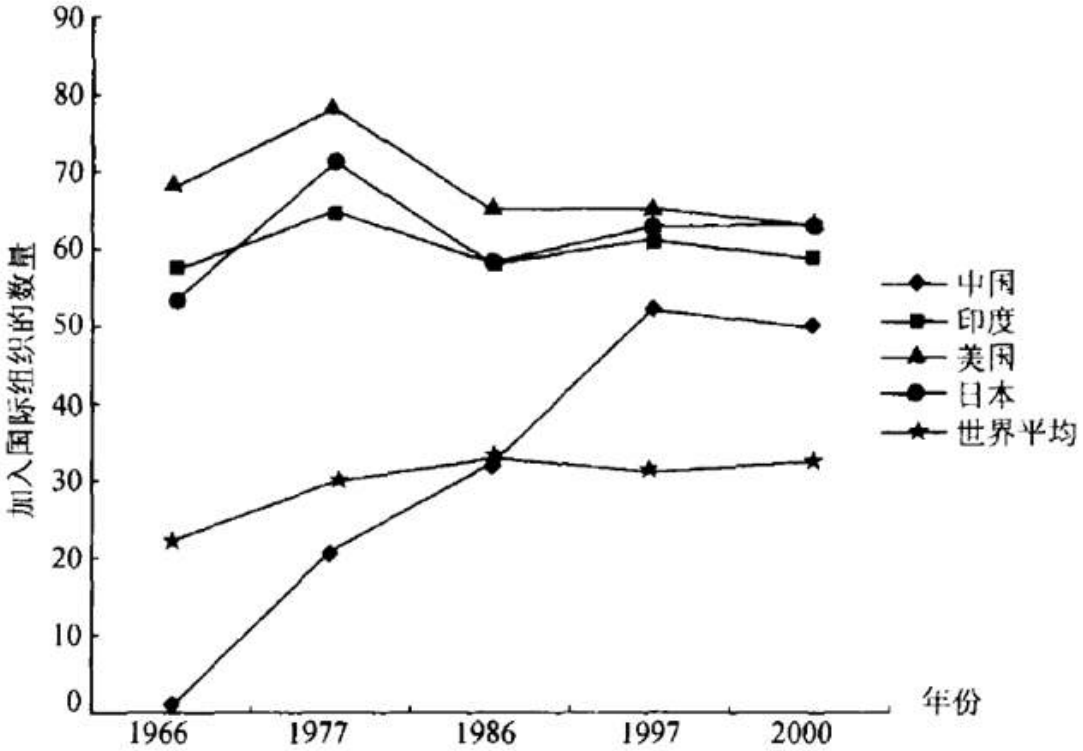
1990년대 초반부터 중국은 자국의 이익에 따라 국제체제에 대하여 선별적. 차별적으로 참여 및 활동의 수위를 조절하는 태도를 보여왔다.[35] <그림1>는 1966년부터 2000년까지 중국이 국제기구의 참여현황인데 중국의 참여율이 미국, 일본, 인도 등 국가가 국제기구에 대한

---

28) 韩召颖·姜潭, 앞의 글, p.13.
29) 孙伊然,「亚投行、'一带一路'与中国的国际秩序观」,『外交评论』, 2016年 第1期, p.6.
30) 郑启荣·牛仲君 主编,『中国多边外交』世界知识出版社, p.27.
31) Samuel Kim, *China the Nations and World Onler*, p. 209; 郑启荣·牛仲君 , 앞의 책, p.61에서 재인용.
32) 박홍순,「중국과 다자외교 –UN과 PKO 정책: 中國多者外交-UN(國際聯合)/PKO(平和維持活動)政策」, 평화연구학회, p.228.
33) 채규철,「중국의 대외전략과 향후 대외관계 전망」,『社會科學研究』, 2013, 52(4), p.136.
34) 门洪华,「'韬光养晦、有所作为'战略方针与20世纪90年代的中国外交」,『吉林大学社会科学学报』, 2016年 第4期, p.84
35) 한석희,「중국의 다극화전략, 다자주의외교, 그리고 동북아시아 안보」,『국제지역연구』, 제11권 제1호, p.358.

참여수준의 80%에 달한 것으로 보인다.[36] 21세기 초 중국이 WTO 가입으로 이러한 행보가 더 적극적으로 나타났다. 2007년 중국이 참여 한 4,386개 국제기구 중 1,753개가 협정성(協定性) 기구인데 그 중 A형(국제기구연맹) 25개, B형(지구적 국제기구) 374개, C형(洲際組織) 575개, D형(지역조직)은 779개로 통계되었다.[37] 이러한 국제기구에서의 참여범위는 국제안보제도, 국제경제제도, 국제환경제도 내지는 인권제도 등 전방위적인 특징을 보였으며 지역별로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중점이었다.

<그림1> 중국과 미국, 일본, 인도 등 국가가 국제기구 참여율 비교



* 자료출처: Yearbook International Organizations, 38th ed.(Brussels: Union of International Associations, 2000/2001); 江忆恩(Alastair Lain Johnston), "中国对国际秩序的态度", 『国际政治科学』, 2005年 第2期, p.32, 재인용.

서구학자들은 중국의 정치, 문화, 역사 등 요인에서 출발하여 중국이 국제제도에 대한 준수율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예상했으나, 연구결과에 따르면 중국이 국제체제에 대한 수용

36) 江忆恩(Alastair Lain Johnston), 「中国对国际秩序的态度」, 『国际政治科学』, 2005年 第2期, p.32.

37) Figure 2.1.1. Geographic distribution: membership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by country: 2007, p.41, Figure 2.1.1. Geographic distribution countries in the greate st number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 2007, *Yearbook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Guide to Global Civil Society Networks: 2008-2009, p.50; 朱立平, 「中国参与国际体系的评估指标及相关分析」, 『江海学刊』, 2009.05, p.165에서 재인용.

및 융합은 아주 높았다.[38] 1980년대부터 중국은 국제환경의 변화와 국내발전 노선의 조정에 따라서 국제사무에 대한 정책을 조절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유엔 평화유지에 대한 입장에서 발견할 수 있다. 1981년 중국은 '유엔헌장에 따라서 국제 평화와 안정 및 국가의 주권과 독립에 유리한 평화행동을 지지할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39] 1982년부터 중국은 유엔 평화유지 배당금을 담당하는데 동의하였으며 1986년에는 체납금을 납부하였다. 1988년 9월에 유엔 평화유지행동특별위원회에 가입하여 유엔 평화유지활동에 거의 찬성을 하였다. 또한 중국은 평화유지 활동 인력을 파견을 하였으며 그 숫자는 점차 증가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002년 이전에 중국이 투입한 인원은 약 100명의 수준에 머물러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등 국가보다 확연히 낮은 수준이이다. 그러나 2003년에 300명으로 상승하여 2004년부터 총 숫자가 1,000명 이상에 달했다. 2008년 현재 중국은 18차례 총 10,000명의 인원을 유엔 평화유지 활동에 파견하였다.[40] 중국의 이러한 행보는 개혁, 개방 이후 성장한 국력과 걸맞은 '책임대국'의 이미지 창출전략 형태를 보이고 있다.

Ⅲ. 시진핑 시대의 중국외교: 운명공동체와 신형국제관계

중국의 부상에 따라 중국의 국가정체성에 대한 논쟁도 시작이 되었다. 국제관계의 측면에서는 중국을 부상한 '신흥대국(新興大國)', '신형초강대국(新型超級大國)', '개량적 수정주의(改良修正主義)', '조화세계의 건설자(和諧世界的建設者)'로[41] 간주하였고, 국제체제와의 관계에서는 중국을 '국제체재 내의 강대국(體係內大國)', '책임대국(責任大國)', '도전적 대국(挑戰大國)'으로 평가하였다. 이러한 논쟁과 함께 중국외교는 2009년부터 특히 시진핑 집권 이후 새로운 조정적 국면에 진입하였다. 현재 중국의 외교를 '공세적 외교', '개혁과 창신'이라고 분석하는 것이 보편적인 견해이며 중국의 이러한 전형은 '인류운명공동체'의 제창과 이를 위한 외교적 실천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1. 인류운명공동체의 창의

1) 전개과정

'운명공동체'는 2010년의 "제2차 중·미 전략경제대화"에서 언급된 개념이다. 2011년 9월,

38) Ann Kent, *Beyond Compliance: China,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Global Security,* p.222; A last air Lain Johnston, *Social State: China in international Institutions,* 1980-2000, p.196; 朱立平, 「中国参与国际体系的评估指标及相关分析」, 『江海学刊』, 2009.05, p.165에서 재인용.

39) 『中国代表团出息联合国有关会议文集』, 世界知识出版社, 1981, p.130.

40) 张慧玉, 「试析中国参与联合国机制对世界的影响」, 『国际论坛』, 2003年 第5期, 郑启荣·牛仲君, 앞의 책, p.64에서 재인용.

41) 陈志敏, 「全球治理中中国的写尽力量定位」, 『国际政治研究』, 2012年 第4期; 公为明, 「关于世界大变革与中国外交大转型的思考」, 『国际观察』, 2017年 第四期, p.19에서 재인용.

“중국의 평화발전 백서”는 ‘국제사회는 반드시 제로섬 게임에서 벗어나 ‘운명공동체’의 시각, 협력과 상생의 이념, 문명 간의 학습, 국가 간의 협력으로 인류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도전에 대응하고 상호포용적인 발전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42] 이어서 2012년 중국공산당 제18차 대표대회는 ‘운명공동체’를 대외전략의 10대 지침 중 하나로 삼았다. 시진핑 주석은 2013년에 처음으로 ‘인류운명공동체’를 언급 한 후 다양한 자리에서 수차례 걸쳐 ‘인류운명공동체’를 해설하였으며 이에 따라 중국이 주장하는 ′인류운명공동체′의 윤곽이 들어나게 되었다. 2015년 9월 시진핑 주석은 유엔대회에서 ‘인류운명공동체’의 내용을 국가 간의 ‘평등·이해·협상으로 동반자관계 구축, 공정·공평·정의·공동으로 건설·공유(共享)의 안보구조, 창신·포용·호혜적인 경제관계, 화이부동. 상호포용(兼收并蓄)의 문명 간의 교류, 자연. 녹색. 발전적 생태체계의 구축’[43]으로 중국이 추구하는 ‘인류운명공동체’를 설명하였다. 2017년 1월 18일, 시진핑은 유엔 연설에서 ‘인류운명공체’ 구축의 관건은 행동에 있으며 국제사회는 동반자관계, 안보구조, 경제발전, 문명 간의 교류, 생태 등 여러 방면에서의 노력을 기울여야한다고 강조하였다.[44] 2017년 10월 중국공산당 제19차 대표대회는 ‘인류문명공동체 구축’을 중국공산당 당헌에 수록하였으며 2018년3월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이를 중국헌법에 기재하였다. 또한 2017년 2월 10일 “아프리카 신개발 협력 계획(NPAD: New Partnership for Africa’s Development)”는 중국이 제창한 ‘인류운명공동체의 구축’을 채택하였다.[45] 이로서 ‘인류운명공동체’는 국제사회로부터 호응을 얻게 되었다. (<표1>은 ‘인류운명공동체’ 개념의 전개과정이다)

<표1> ‘인류운명공동체’ 개념의 전개과정

시간	장소	내용
2010.	제2차 중·미 전략과 경제대화	운명공동체
2011.09	중국의 평화발전 백서	운명공동체의 시각으로 인류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 대응 및 상호포용적인 발전 추구
2012.10	중국공산당 18차 대표대회(후진타오)	대외관계 10대 지침으로 삼음
2013.03	모스크바 대학연설	인류사회는 갈수록 상호융합('你中有我, 我中有你') 적인 운명공동체로 발전
2013.04	버아오포럼(博鰲論壇)	운명공동체를 견고하게 수립
2013.10	동남아 방문 시	중국-아세안 간 긴밀한 운명공동체
2014.11	중앙외사공작회의	주변운명공동체를 타조
2015.09	버아오아시아포럼	아시아운명공동체로 인류운명공동체 건설 추진
2015.11	제17차 유엔회의	협력적 윈윈의 동반자관계 구축으로 인류운명공동체 구축
2016.07	중국공산당 창당95주년 대회	인류운명공동체와 이익공동체를 추동

42) 陈须隆,「人类命运共同体理论在习近平外交思想中的地位和意义」,『当代世界』, 2016.07, pp.9-10.
43) 习近平,「携手共建合作共赢新伙伴, 同心打造人类命运共同体」,『习近平谈治国理政』, 第二卷, pp.523-525; 杨洁勉,「新时代中国外交的战略思维和谋划」,『外交评论』, 2018年 第1期, p.5에서 재인용.
44) 杨洁勉,「新时代中国外交的战略思维和谋划」,『外交评论』, 2018年 第1期, p.5,재인용.
45) 周安平,「人类命运共同体概念探讨」,『法学评论(双月刊)』, 2018年 第4期(总第210期), p.17.

2017.05	일대일로 국제협력 포럼	제휴로 광범위한 이익공동체를 구축
2017.07	G20회의	광범위한 이익공동체 구축
2017.10	중국공산당 제19차 대표대회	중국공산당 당헌에 기재
2018.03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중국헌법에 기재

*자료출처: 新華網 보도에 따라 저자가 정리

2) 배경

후진타오 집권 끝 무렵에 제시된 '공동체' 개념을 시진핑 시기에 전면적으로 전개 되었으며 범위는 국가 간 공동체에서 지역공동체 나아가 인류운명공동체로 확대되어 왔다. 이러한 운명공동체의 개념이 나오고 또 중요시 하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이 분석된다.

첫 번째는 글로벌화이다. 정보화의 확산으로 국가 간의 상호의존과 공동체 개념이 전례 없이 강화되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은 국가 간의 협력관계의 형성과 함께 환경. 에너지. 사이버 안보와 같은 지구적 차원의 문제를 부각시키기도 하였다. 중국은 이렇게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도전에 대해서 일국이 독자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 어떤 나라도 혼자 힘으로 인류가 직면하는 온갖 문제에 대응할 수 없다고 생각하였으며 어떤 나라도 그럴 필요가 없다는 기본적인 인식 [46] 하에 '인류운명공동체'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두 번째는 중국의 국가 이미지 구축의 필요에서 출발한 것이다. 21세기 국제질서의 가장 큰 변화는 중국의 부상이라 할 수 있겠다. 경제적으로 중국은 현재 124개 국가(지역)의 제1대 무역국이며, 외자유치와 대외투자는 세계2위를 차지하였다. 정치적으로 중국은 국제질서의 중심부로 진입하고 있으며 중국과 국제질서의 관계가 기존의 피동적. 수동적 관계에서 적극적. 능동적 관계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유례 없는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예컨대 2012년 이후 중국은 '홈그라운드 외교(主場外交)'로 국제회의를 35차례 개최하였다. 회의 참가국가(지역) 또는 기구가 약 224개에 달했는데 그 중 절반 이상은 중국이 처음으로 제안 혹은 정례화 된 회의 또는 장기성 국제정상회이다. 중국은 이러한 국제회의 의제설정 권리 확보 및 발언권 향상으로 국제적 영향력을 제고하였다. [47]

그러나 부상한 중국이 직면한 국제환경은 낙관적인 것만은 아니다. 여러 가지 문제 중 안보적인 압력이 가장 주목을 받는다. 실제적으로 개혁.개방 이후 중국이 어떠한 국가로 발전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줄곧 국제사회의 관심의 초점이자 중국지도자들의 고민이었다. '중국의 길'에 대한 국내외의 논쟁 중에 중국은 '평화궐기(和平蹶起)'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중국과 주변국가 간의 영유권문제, 미국의 아태지역전략의 조정 등 여러 가지 국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중국의 '평화궐기' 환경은 여의치 않았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 외교의 공간이 더욱 축소 된 양상을 보였다.[48] '국가'에서 '강국'으로 진입한 중국이 어떠한 세계를 추구할 것

46) 「중국공산당 제19차 당대회 종합분석」, 성균중국정치연구소, 2017.10.26., p.11.
47) 胡鞍钢·李萍, 「习近平构建人类命运共同体思想与中国方案」, 『习近平新时代中国特色社会主义思想特别策划』 pp.2-5.

인가? 라는 문제가 향후 중국이 '위대한 부흥'의 실현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기 때문에 평화적·상생적·공헌적 이미지 구축은 중국에게 있어 중대한 과제이다.

3) 내용과 특징

중국의 인류운명공동체 구상은 명확하지 않다. 현재까지 중국에서 논의된 내용으로 정리해 보면 대체적으로 다섯까지 측면으로 귀결된다. 우선, 경제적으로 중국은 협력과 윈-윈으로 공동발전과 이익의 공유를 추구하는 것이다. 자국과 타국 간의 이익의 조화, 개방적. 포용적 협력, 균형과 상생으로 보다 공평한 국제 경제질서를 구축하며, 정치적으로는 국가 간의 주권의 평등을 기조로 세계가 함께 국제규칙을 제정하며 국제사무의 관리, 협상과 소통 등 평화적인 수단으로 분쟁과 충돌을 해결, 종합. 협력. 지속가능한 안보관 수립 및 문화의 상호융합, 그리고 녹색. 저탄소를 비롯한 지속가능한 생산의 추구 등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중국이 주장하는 인류운명공동체의 특징으로는 다음과 같이 분석이 된다.

첫 번째 특징은 '가치'에 대한 추월이다. 인류운명공동체는 기존에 미국이 추구한 국제질서가 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 등 가치규범 확산을 전제로 피아를 구분했던 것과 달리 이념과 체제, 문화적 차이를 넘어서 공동이익을 매개로 협력적 동반자 관계를 실현하겠다는 비전이다.[49] 인류운명공동체는 '지구는 하나이며 국가들은 같은 세계 속에 있다'라는 공통된 이익의 기반으로 강조함과 부동한 문명 간의 융합을 중요시하였다. 중국의 학자들은 공통된 이익을 평화와 발전이라는 소망으로 상호 간에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였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인류사회가 공동으로 직면한 도전 앞에서 그 어느 국가도 예외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책임을 함께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두 번째 특징은 공동번영에 대한 강조이다. 경제글로벌화는 세계경제의 상호의존 및 번영과 함께 국가 간의 빈부경차도 초래되었다. 시진핑은 중국경제의 신상태(新常態)에 대한 강조와 함께 '중국몽'과 '세계몽'의 상관성을 강조하였다. 그는 '세계가 좋아야 중국도 좋고, 중국이 좋아야 세계도 좋기' 때문에 세계 각 국가는 중국 발전의 '편차 탑승(搭便車)'를 환영한다고 역설하였다. 중국은 인류운명공동체로 세계와 중국의 연결성을 강조하면서 국가 간 공존과 공영을 위한 중국의 공헌이라는 주장이다.[50]

2. 신형국제관계의 구축

중국공산당 제18차 당대회에서 제안한 '신형대국관계' 대신 19차 전당대는 '신형국제관계'를 강조하는 것이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실제로 중국이 신형국제관계에 대한 언급은 이번이 처

---

48) 赵可金,「中国外交3.0版：十八大后的中国外交新走向」,『社会科学』, 2013年 第7期, p.5.

49) 이문기,「시진핑 시대 '중국의 꿈', 국내정치 맥락과 대외정책의 변화」,『세계지역연구논총』, 제36집 1호, p.98.

50) 김재철,「중국식 강대국 외교정책과 중국 외교의 기조: 시진핑 집권 1기의 평가와 향후 전망」,『2017 중국정세보고』,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중국연구센터, 2018.03, p.155.

음이 아니다. 2013년 시진핑 주석이 모스크바대학 방문 시, '각 국가는 협력과 윈-윈을 핵심으로 신형국제관계의 창립을 진행해야 하면 각국인민은 반드시 함께 세계평화를 수호하고 공동발전을 촉진해야 한다'라는 연설을 하였다, 이것은 시진핑 주석이 처음으로 신형국제관계를 언급한 것이다.[51] 2014년 11월 시진핑 주석은 중앙외사공작회의에서 '협력과 윈-윈을 핵심으로 신형국제관계를 건립하여 호혜적인 개방전략으로 협력과 윈-윈의 이념을 정치. 경제. 안보. 문화 등 대외협력의 여러 가지 면으로 구현시켜야 한다'라고 설명하였다. 이후 중국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신형국제관계'의 구축을 강조하였는데 이러한 '신형국제관계'는 다음과 같은 각도로 실천이 되었다.

1) 신형대국관계

신형대국관계는 국제체제에서 자국의 변화된 위상과 그 위상에 따라 중국이 자신의 행위를 규정하는 인식 변화에서 제기된 것이며[52] 시진핑 주석 집권 1기의 중국 외교전략의 마크이다.[53] 1990년대 중반 이후 중. 미관계는 가장 중요한 양자관계로 갈등과 협력 속에서 반복을 겪었다. 중미관계를 '크게 나빠지지 않을 것이며 그렇다고 크게 좋아질 것도 아니다'라는 인식에서 출발하여 중국은 '싸우면서 깨지지 않는다(斗而不破)'라는 원칙을 양국관계의 마지노선으로 간주해 왔다. 그러나 21세기 접어 들면서 중국이 국제무대에서 보여준 적극적인 자세는 양국으로 하여금 아태지역 내지는 글로벌 차원에서의 이익 충돌을 빈번하게 노출시켰다. 21세기 이후 특히 2009년 이후 양국 관계는 갈등적 부분이 더 강조되었으며 중·미관계가 투키디데스함정의 비극을 면할 수 있을까?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양국관계에 대한 새로운 정립을 요구하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하에 2012년 2월 시진핑 부주석이 미국 방문 시 '신형대국관계론'을 제기하여 중·미관계의 안정이 없이 아태지역의 안정을 담보할 수 없다는 중국 측 입장을 미 오바마 대통령에게 전했다. 2012년 5월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은 베이징에서 개최된 '제4차 중미 전략경제대화'에서 중·미 양국은 '국제정세와 국내상황이 어떻게 변화하든지 간에 쌍방은 협력적 동반자관계를 공고히 추진해야 하며 양국의 국민과 전 세계가 안심할 수 있는 신형대국관계를 구축해야 한다'[54]고 역설하였다. 후진타오는 신형대국관계를 다섯 가지로 설명하였다. 첫째, 혁신적 사고로 대국 관계의 새로운 경로모색, 둘째, 상호 신뢰와 공동 발전, 셋째, 평등과 상호간의 양해 및 상대방의 이익에 대한 존중, 넷째, 적극적 행동과 실질적 협력, 다섯째, 우정을 다지고 광범위한 교류를 촉진이다. [55]

이러한 '신형대국관계론'은 2013년 6월 7-8일 이틀 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바마 미

---

51) 王巧荣, 「以合作共赢为核心构建新兴国际关系」, 『当代中国史研究』, 2016年 第4期, p.34.
52) 차창훈, 「중국의 신형대국관계(新型大國關係) 제기에 대한 일 고찰: 내용, 배경 및 평가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p.5.
53) 门洪华, 「构建新型国际关系 : 中国的责任与担当」, 『世界经济与政治』, 2016年 第3期, pp.5-6.
54) 『胡锦涛文选』(第3卷), 人民出版社, 2016年版, p.584; 于洪君, 『从参与全球化到打造共同体』, 中国经济出版社, 2017, p.149에서 재인용.
55) 장루이좡(張睿壯), 「신형대국관계 전략의 기원과 난제」, 『Sungkyun China Brief』, p.90.

국 대통령과의 만남과 양제츠(楊潔篪) 전 중국외교부 부장이 “제5차 중미 전략경제대화”에서의 연설에서 신형대국관계를 세 가지 함의로 해석하였다. 첫째는 불충돌, 불대항(不冲突, 不对抗)이다. 즉, 객관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통해 전략의도를 파악하고, 파트너십을 강조함으로써 대화와 협력을 통해 갈등과 이견을 해소하는 것이다. 둘째는 상호존중이다. 상대방의 사회제도와 핵심이익을 존중하며 구동존이(求同存異)를 원칙으로 포용을 통해 공동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셋째는 윈-윈 구도의 추구이다.[56]

신형대국관계는 강대국과의 협력을 보장하는 것과 중국의 자주성과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다. 중국의 신형대국관계론은 미국이 주도하는 틀 내 중국의 책임 있는 강대국 역할을 할 수 있으며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에 대한 고차원적 대응으로 간주된다.[57] 다시 말해 중국은 신형대국관계를 통해 미국과의 관계에서 ‘상호존중, 협력, 윈윈’으로 관계를 정립하고자 하며, 동시에 각자의 핵심 이익을 드러내지 않은 가운데 건설적인 경쟁을 하고 지역 및 범세계적인 이슈에 대해서는 협력하자는 주장을 한 것이다.[58]

이러한 신형대국관계는 몇 개 차원을 포함하였다.[59] 첫째, 중국이 대미관계 접근의 기틀이다. 시진핑 주석은 2012년 오바마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중·미 양국은 전략적 신뢰의 강화, 상대 국가 핵심 이익에 대한 존중 및 포용적인 협력을 전개하여 공동으로 글로벌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미국은 신형대국관계의 논의 중 ‘충돌을 회피하자’는 주장에 동의하지만 ‘상호존중’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았다. 양국의 체제가 다르고 국가의 가치체제가 다르기 때문이다.[60] 둘째, 러시아와의 ‘비결맹 동반자(結伴不結盟)’ 관계의 정립이다. 시진핑은 2013년과 2014년의 첫 번째 외국 방문의 목적지를 러시아로 하여 러시아가 중국외교에서의 우선순위를 과시하였다.[61] 미국과 유럽이 러시아와의 관계가 곤경에 처한 상황에서 중국과 러시아 관계의 긴밀화가 주목을 받았다. ‘중국국제문제연구기금 집행이사장(中國國際問題研究基金執行理事長)’이며 러시아 주재 중국 전 대사였던 류구창(劉古昌)은 ‘중국과 러시아는 비결맹 신형대국관계이며 쌍방은 결맹의 정책과 의도가 없다’라고 밝혔다.[62] 셋째는 중국과 기타 중요 국가 및 국제기구와의 전략적 동반자관계의 발전을 포함하였다. 브릭스 국가와의 협력, 중요국가와의 전략적 관계 강화 등등 모두 중국이 제창한 신형대국관계의 틀에 속한다.

2) 주변외교[63]

---

56) 杨洁篪,「『求是』撰文论中国外交：开局体现战略性」, 中华人民共和国驻韩国大使馆网站. http://www.chinaemb.or.kr.

57) 이정남,「미.중 협력과 경쟁 사이 중국은 왜 신형대국관계를 말하나?」,『통일한국』, 2014.11, p.22.

58) 이정남, 위의 글, p.22.

59) 王逸舟,『创造性介入』北京大学出版社, 2015.11, pp.75-76.

60) 한인희,「중·미 양국의 '신형대국관계'에 관한 연구」,『社會科學研究』, 제15권 제1호(통권42호), p.4.

61) 冯绍雷,「中俄可能为大国关系提供新的范式」,『人民论坛』, 2014年3月上 ; 门洪华,「十八大以来中国国际战略布局的展开」,『社会科学』, 2017年 第8期, p.24에서 재인용.

62)「刘古昌谈习近平访俄：中俄是新型的大国关系」. (中国网 http://www.china.com.cn/international/txt/2013-03/22/content)

63) 리단,「시진핑(習近平) 시기 중국의 한반도 전략 패러다임 분석」,『평화연구』, 제16권 2호(2016). pp. 14-16 내용에 근거하여 재정리.

중국은 주변 국가와의 외교전략 강구에 주력하고 있다. 2013년 10월 24-25일 중국은 건국 이후 처음으로 '주변외교공작좌담회(周外交工作座谈会)'를 소집하여 주변국가와의 '운명공동체'를 강조하였다, 주변국가와의 외교원칙을 '이웃나라와 화목하게(与邻为善) 벗으로 지내(以邻为伴)고, 친화(亲)·성의(诚)·호혜(惠)·포용(容)의 이념을 견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64] 시진핑은 2013년 보아오포럼(博鳌亚洲论坛)에 참석하여 주변국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중국과 주변 국가와의 관계를 적극 발전시키고 있다. 베트남 국가 주석 쯔엉떤상(张晋创), 박근혜 한국대통령, 샤리프 파키스탄총리 등 주변 국가 수뇌가 중국을 방문하였다. 중국은 주변국가와의 관계 강화를 통하여 주변국들로 하여금 중국의 지역질서 제창에 동참 또는 유도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최근 중국이 제시한 '일대일로(一帶一路) 구상'과 AIIB 등과 같은 아시아 구상 전략은 바로 이러한 현상 변경을 시도하는 중국의 전략적 의도와 같은 맥락이다.

2013년 9월 10일 중앙아시아와 동남아 방문 시, 시진핑 주석은 각각 육상 신 실크로드(一帶)와 신 실크로드(一路) 구축을 제안하였으며, 2013년 11월에는 중국공산당 제18기 3중전회에서 공식적으로 결정되었고, 전인대 12기2차회의에서 국무총리의 업무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국가전략으로 정해졌다. <그림2>에서도 나타나듯이, 일대일로 전략은 아시아에서 유럽까지 이어지는 대중화경제권 구상 전략에 해당되며, 중국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는[65] 데 의미가 있다. 더불어 '일대일로' 전략의 금융 플랫폼으로 AIIB 설립을 추진하였으며, 2014년 10월 24일에는 창립선언을 하였다. AIIB는 신 실크로드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투자재원 마련과 함께 중국의 위안화 국제화 전략의 일환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림2> 중국의 '일대일로' 노선도

* 자료: 언론보도,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64) 「习近平: 让命运共同体意识在周边国家落地生根」(新華網 http://news.xinhuanet.com/2013-10/25)

65) 이지용, 「중국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의 정치경제학적 함의와 시사점」, 『주요국제문제분석』, 2014 겨울, p.221.

3) 글로벌 거버넌스에 참여

2001년 WTO 가입은 중국과 국제질서를 연결시켜주었다. 2006년 원쟈바오(溫家寶) 전 국무원 총리는 '중국·유럽 포럼' 제2차 회의 개막식 연설에서 '중국은 책임국가이며… 국제체제의 참여자. 수호자 및 건설자다'라는 중국이 국제질서에 대한 입장을 천명하였다.[66] 2008년 이후 중국의 국제체제에 대한 접근은 '참여'에서 '건설'로 전환하는 중이다. 시진핑 시기에 접어들면서 중국은 수차례 '건설적', '주도적' 역할론을 강조하였다. 예컨대 2016년 중국 공산당 창당 95주년 연설에서 시진핑 주석은 중국이 세계 평화와 발전의 건설자, 공헌자, 수호자 역할을 밝혔으며 2017년 2월 17일 '국가안전위원회 공작좌담회(國家安全委員會工作座談會)'에서 '중국은 국제사회와 함께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국제신질서 및 국제안전의 수호를 이끌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기존의 참여. 건설적인 역할에 비해 주도적 역할론을 더 강조하였다. [67] (<표2>는 중국이 국제질서에 대한 목표 인식이다)

<표2> 중국이 국제질서에 대한 목표

시기구분	정통주도
청말기(1800-1860)	분리주의자
청말부터 중화민국(1896-1939	참여주의자
마오쩌둥 시대(1949-1976)	수정주의자
덩샤오핑 시대	참여주의자
후 덩샤오핑 시대	참여주의자
시진핑 시대	건설주의자

*朱锋. (美) 罗伯特. 罗斯,『中国崛起:理论与实践』上海人民出版, 2007年版, p.167; 公为明, "关于世界大变革与中国外交转型的思考",『国际观察』, 2017年 第4期, p.21에서 재인용

중국은 이러한 '건설적, 주도적 역할'의 실천의 일환으로 글로벌 거버넌스 전략을 강조해왔다. 중국공산당 18차 대표대회 이후 중국이 글로벌 거버넌스에 대해 중시 하는 정도와 참여도가 사상 최고에 달했다.[68] 중국은 2015년과 2016년 글로벌 거버넌스에 대한 학습을 두 차례 진행하여 높은 관심을 보였다. 시진핑 집권 이후 중국은 일대일로 AIIB와 NDB 창설을 주도, SDR편입, 기후변화협정의 체결 등 일련의 행동으로 글로벌 거버넌스 개혁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중국은 '공상(共商)', '공건(共建)', '공향(共享)'을 거버넌스의 원칙으로 표방하여 윈-윈을 강조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국제기구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로 글로벌 거버넌스에서 중국의 발언권을 높이려고 하였다. 예컨대 중국은 G20을 자국이 글로벌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플랫폼

66) 温家宝,「开创中欧关系合作、共赢、和谐的新局面-在中欧论坛第二次会议开幕式上的讲话」,『国务院公报』, 2006年 第32期, pp.5-6; 陈东晓,「新世纪前十年中国外交布局的转型和升级」,『国际观察』, 2012年 第6期, p.12에서 재인용.

67)「习近平首体两个'引导'有深意」(http://news.china.com.cn/2017-02/20/content_40324193.htm)

68) 王鸿刚,「中国参与全球治理：新时代机遇与方向」,『外交评论』, 2017年 第6期, p.1.

으로 간주하여 이를 글로벌 거버넌스의 기제로 적극 진행하려 하였다. 2013년 시진핑은 G20을 '세계경제의 안전기(穩定器), 글로벌 성장의 촉매제(催化器), 글로벌 거버넌스의 추진기(推進器)로 발전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2016년 중국은 의장국으로서 '항저우행동계획(杭州行動計劃)'을 비롯한 성명과 원칙에 중국방안을 반영시켰다. 둘째, 일대일로 전략으로 중국 주도의 다원협상의 국제협력을 강화하려 하였다. 예컨대 중국공산당 19차 대표대회는 '일대일로를 중점으로 육지와 해양의 연동 및 동서 간의 양방향적 개방구조를 형성, 일대일로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으로 국제협력의 신 플랫폼을 만들며 개방형 세계경제를 촉진한다'라고 강조하였다. 셋째, 적극적인 자유무역구의 건설로 지역경제 일체화를 주도하려 하였다. 중국은 2016년까지 건립한 자유무역구는 약 19개이며, 체결한 협정은 약 14개이다. 또한 중국은 RCEP, FTAAP와 같은 기제로 지역경제 일체화에서 주도권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국의 이러한 글로벌 거버넌스에 대한 참여를 중요시하는 원인으로는 해외이익의 증대, 글로벌 대국의 정체성 인식에서 기인된 국제책임, 그리고 중국이 제창하는 운명공동체 실천 등이 있으며 그 성과도 어느 정도 거두었다. 중국의 많은 학자들은 미국우선주의 배경하의 국제환경을 중국의 전략적 공간을 확대할 수 있는 전략적기회(戰略機會)로 간주하여 중국이 글로벌 거버넌스에 대한 참여를 역설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향후 글로벌 거버넌스 참여에서 직면할 도전은 외면할 수 없다. 중국의 보여주고 있는 국제전략으로 국제사회가 중국의 '패권지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서구국가들이 글로벌화에 대한 '손해' 인식과 중국을 '글로벌화의 최대 수혜자' 인식으로 중국이 추구하는 주도자 자질에 대해 과연 어느 정도 인정할지[69] 등의 과제가 있다.

Ⅳ. 결론: 시진핑 시기 중국외교의 변화와 지속

전체적으로 시진핑 시기의 중국은 후진타오 집권시기로부터 넘겨받은 국내 문제 해결에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대외적으로는 소위 핵심이익과 관련된 의제를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저비용의 안정적인 국제관계를 지향해 가야 하는 입장이다.[70] 따라서 큰 틀에서 중국은 기존 지도부 시기와의 연속성을 보여주고 있다. 첫째, 평화공존 5원칙을 대외전략의 기본원칙으로 하였다. 둘째, 시대적 과제를 '평화'와 '발전'으로 인식하였다. 중국공산당 18차 대표대회는 '지금은 세계가 심각하고 복잡한 변화가 있으나 평화와 발전은 여전히 시대적 주제' 라는 판단을 하였다. 19차 대표대회도 '세계가 대발전(大發展), 대변혁(大變革), 대조정(大調整)시기이지만 평화와 발전은 여전히 시대적 주제'라고 재확인하였다. 셋째, 국가정체성을 '발전 중 국가'라는 판단이다. 중국은 국력과 국제지위의 부상으로 '세계적 대국'으로 각인되었다. 그러나 중국은 여전히 자국을 개발도상국가로 간주하였다. 시진핑은 '중

69) 王鴻剛, 앞의 글, p.12.
70) 이동율, 「시진핑체제 외교정책의 변화와 지속성: 제18차 전국대표대회 보고를 중심으로」, 『中蘇 硏究』, 제36권 제4호, p.31.

국은 현재 세계에서 2번째로 큰 경제체이지만 여전히 개발도상국이라는 위치는 변화가 없다. 중국은 단지 등치가 큰 것뿐이며 기껏해야 발전 중인 대국(發展中大國)이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위에서 언급된 지속성에 비해 시진핑 시기 중국이 국제체제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였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상대적 쇠약으로 향후 중국이 미국을 추월할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널리 확산되었다. 물론 다수의 전문가들은 당장의 국력에서 중국은 여전히 미국과 상당한 격차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일초다강'의 국제질서는 점차 약회되고 '양초다강(兩超多强)' 시대로 변화가 시작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심지어 엔쉐퉁(閻學通) 교수는 향후 국제질서 변화는 다극화가 아니라 중국과 미국의 양극시대가 될 것이라는 주장했다.[71] 이러한 국제체제에 대한 판단에 따라 중국 외교는 조정적 국면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즉 시진핑 시기 중국외교는 과거 어느 시기보다도 강한 자신감으로 피동적 대응에서 선명하고 적극적인 태세로 전환하였다.[72]

이것은 우선 외교목표 설정의 명확성에서 나타났다. 시진핑 시기의 중국은 인류문명공동체와 신형국제관계 구축을 내세워 '중국 특색의 대국외교'를 제기 및 전개하고 있다. 중국의 이러한 제안은 기존의 외교목표가 '모호'함으로 국제사회로부터의 오해를 초래했다는 비판에서 교훈을 받아들인 것이다. 또한 외교 목표는 기존의 경제성장을 위해 평화적인 주변 환경 조성이라는 데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위함이라는 점을 공공연하게 선언하였다. 즉 중국의 외교목표는 기존의 '돈을 벌기 위해서'에서 '친구를 찾기 위해서'로 전환하였다는 것이다.[73]

둘째는 기존의 상호신뢰 강조에 비해 시진핑 시기의 중국외교는 공동이익을 강조하였다. 중국이 중앙아시아와의 '실크로드 경제벨트', 동남아와의 '해상 실크로드 경제벨트', 남아시아와의 '중국·인도·미얀마·방글라데시 경제회랑' 등 지역협력기제, 그리고 운명공동체로 주변국가 연결된 안보협력 등등 사례는 모두 서로간의 신뢰보다 공동이익이 우선시되었다는 점이 주목된다.[74]

셋째, '적극적인 유위관(積極的有爲觀)' 즉 역할론에 대한 강조이다. 중국공산당 19차 대표대회 보고가 중국공산당은 '중국 인민의 행복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인류를 위해 더 큰 공헌을 하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고 규정한데서도 확인된다. 이는 중국은 여러 가지 중국의 방안으로 국제질서에 영향을 끼치려는 시도이기도 하다. 이러한 사실은 양제츠가 인류운명공동체 건설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글로벌 기버넌스에 깊이 참여하여 국제질서 개혁의 방향을 적극적으로 인도'할 것을 강조한 데서 단적으로 확인되었다.[75]

요컨대, 시진핑 시기의 중국외교는 이념과 실천은 기존과의 지속성을 보이지만 질적인 변

---

71) 阎学通,「中国学者首提全球格局从一超多强转向两朝多强」,『环球时报』, 2011.12.30; 金灿荣,「展望未来十年格局」,『南方都市报』, 2017.08.03.; 이문기,「시진핑 시대 '중국의 꿈', 국내정치 맥락과 대외정책의 변화」,『세계지역연구논총』, 제36집 1호, p.98에서 재인용.

72) 金灿荣等著,『中国智慧』, 中国人民大学出版社, 2017, p.20.

73) 阎学通,『超越韬光养晦』天津出版传媒集团, 2016.07, p.36.

74) 阎学通, 위의 자료, p.37.

75) 杨洁篪,「推动构建人类命运共同体」,『人民日报』, 2017.11.19., 김재철, 앞의 글, p.144에서 재인용.

화도 발견할 수 있다. 중국의 외교가 성공적인 전형을 완성할 수 있는가라는 것은 중국이 향후 직면하고 있는 전략적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달려 있다. 현재까지 중국이 '강경외교'를 진행하는 요인은 국력의 급부상, 국내 갈등의 전이 및 중국의 민족주의 등이 있다. 향후 중국의 이러한 '분발외교'는 주변국가와의 '친(親), 성(誠), 혜(惠), 용(容)'의 전략적 신뢰의 구축여부, 일대일로를 비롯한 글로벌 전략에서 강대국과의 이익의 조화여부 및 지역의 이슈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응 여부가 관건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江忆恩(Alastair Lain Johnston), "中国对国际秩序的态度", 『国际政治科学』, 2005年 第2期.

宫　力, "中国国际秩序观的演进与战略选择", 『现代国际关系』, 2014年 第7期.

김성한, "아태지역에서의 G2 체제: 미.중 협력과 갈등 가능성 평가", 『전략연구』 통권 제60호(2013.11).

公为明, "关于世界大变革与中国外交转型的思考", 『国际观察』, 2017年 第4期.

김재철, "중국식 강대국 외교정책과 중국 외교의 기조: 시진핑 집권 1기의 평가와 향후 전망", 『2017 중국정세보고』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중국연구센터, 2018년 3월.

金灿荣等著, 『中国智慧』, 中国人民大学出版社, 2017.

金灿荣, "展望未来十年格局", 『南方都市报』, 2017.08.03.

김흥규, "시진핑 시기 중국 외교와 북중관계", 「jpi 정책포럼」, 2015.

门洪华, "两个大局视角下的中国国家认同变迁(1982-2012)", 『中国社会科学』, 2013年 第23期.

门洪华, "'韬光养晦、有所作为'战略方针与20世纪90年代的中国外交", 『吉林大学社会科学学报』, 2016年 第4期.

门洪华, "构建新型国际关系：中国的责任与担当", 『世界经济与政治』, 2016年 第3期.

门洪华, "十八大以来中国国际战略布局的展开", 『社会科学』, 2017年 第8期.

『邓小平文选』(第3卷).

刘建飞, "改革开放与新中国外交", 『中共党校学报』, 第19卷 第1期, 2015.02.

리　단, "시진핑(習近平) 시기 중국의 한반도 전략 패러다임 분석", 『평화연구』, 제16권 2호, 2016.

『毛泽东外交文选』, 中央文献出版社、世界知识出版社, 1994年版.

박병광, "시진핑 지도부의 등장과 중국의 대외정책", 『전략연구』, 통권제60호.

박홍순, "중국과 다자외교－UN과 PKO 정책: 中國多者外交-UN(國際聯合)/PKO(平和維持活動)政策", 평화연구학회.

冯绍雷, "中俄可能为大国关系提供新的范式", 『人民论坛』, 2014年3月上.

孙伊然, "亚投行、'一带一路'与中国的国际秩序观", 『外交评论』, 2016年 第1期.

성균중국정치연구소, "중국공산당 제19차 당대회 종합분석".

徐　宏, "习近平外交思想引领中国特色大国外交迈上新征程", 「光明日报」 2018.07.04, 中国社会科学网.

习近平, "携手共建合作共赢新伙伴, 同心打造人类命运共同体", 『习近平谈治国理政』(第2卷).

阎学通, 『超越韬光养晦』 天津出版传媒集团, 2016.07.

杨洁篪, "推动构建人类命运共同体", 『人民日报』, 2017.11.19.

杨洁篪, "『求是』 撰文论中国外交：开局体现战略性" (中华人民共和国驻韩国大使馆网站, http://www.chinaemb.or.kr.

杨洁勉, "新时代中国外交的战略思维和谋划", 『外交评论』, 2018年 第1期.

阎学通, "中国学者首提全球格局从一超多强转向两朝多强", 『环球时报』, 2011.12.30.

安善花·张益姝, “当代中国国际秩序观的构建及其实践战略--基于近代历史记忆和现实国际环境的研究分析”, 『大连大学学报』, 第36卷 第1期.
温家宝, “开创中欧关系合作、共赢、和谐的新局面-在中欧论坛第二次会议开幕式上的讲话”, 『国务院公报』, 2006年 第32期.
王逸舟, “中国外交转型”, 『学习与探索』, 2008年 第5期.
王逸舟, “中国外交六十年”, 『江苏社会科学』, 2009年 第6期.
王逸舟, 『创造性介入』 北京大学出版社, 2015.11.
叶自成, “21世纪初的新形势与中国大国战略新概念”, 『国际政治研究』, 2000年 第6期.
叶自成·蒋立群, “新中国国际秩序观的变迁”, 『党的文献』, 2011年 第6期.
王巧荣, “以合作共赢为核心构建新兴国际关系”, 『当代中国史研究』, 2016年 第4期.
王鸿刚, “中国参与全球治理：新时代机遇与方向”, 『外交评论』, 2017年 第6期.
于洪君, 『从参与全球化到打造共同体』, 中国经济出版社, 2017.
俞沂暄, “中国的国际秩序观”, 『复旦国际关系评论』, 第十四辑.
李東律, “시진핑체제, 외교정책의 변화와 지속성: 제18차 전국대표대회”
이문기, “시진핑 시대 ‘중국의 꿈’, 국내정치 맥락과 대외정책의 변화”, 『세계지역연구논총』, 제36집 1호.
이정남, “미.중 협력과 경쟁 사이 중국은 왜 신형대국관계를 말하나?”, 『통일한국』, 2014.11.
이지용, “중국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의 정치경제학적 함이와 시사점”, 『주요국제문제분석』 (2014 겨울).
장루이좡(張睿壯), “신형대국관계 전략의 기원과 난제”, 『Sungkyun China Brief』.
张少冬, “周恩来外交思想中的国际秩序观”, 『社科纵横』 总第33卷 第1期, 2018年1月.
张历历, 『当代中国外交简史』 上海人民出版社, 2008.
张慧玉, “试析中国参与联合国机制对世界的影响”, 『国际论坛』, 2003年 第5期.
赵可金, “中国崛起与对外战略调整“, 『社会科学』, 2010年 第9期.
赵可金, “中国外交3.0版: 十八大后的中国外交新走向”, 『社会科学』, 2013年 第7期.
赵可金, “建设性领导与中国外交转型”, 『世界经济与政治』, 2012年 第5期.
周安平, “人类命运共同体概念探讨”, 『法学评论(双月刊)』, 2018年 第4期(总第210期).
『中国代表团出息联合国有关会议文集』, 世界知识出版社.
郑启荣·牛仲君 主编, 『中国多边外交』 世界知识出版社.
朱立平, “中国参与国际体系的评估指标及相关分析”, 『江海学刊』, 2009.5.
朱　锋, (美)罗伯特. 罗斯, 『中国崛起:理论与实践』, 上海人民出版, 2007年版.
『周恩来外交文选』, 中央文献出版社, 1990.
陈少铭, “邓小平与改革开放以来中国外交战略的确立”, 『中共党史研究』, 2014年 第10期.
陈须隆, “人类命运共同体理论在习近平外交思想中的地位和意义”, 『当代世界』, 2016.07.
陈东晓, “新世纪前十年中国外交布局的转型和升级”, 『国际观察』, 2012年 第6期.
陈志敏, “全球治理中中国的写尽力量定位”, 『国际政治研究』, 2012年 第4期.
차창훈, “중국의 신형대국관계(新型大國關係) 제기에 대한 일 고찰: 내용, 배경 및 평가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48(4), 2014.9.
韩召颖·姜潭, “改革开放以来中国外交理念的演进——基于中国共产党全国代表大会政治报告的分析(1982-2017)”, 『南开学报(哲学社会科学版)』, 2018年 第1期.
한석희, “중국의 다극화전략, 다자주의외교, 그리고 동북아시아 안보”, 『국제지역연구』, 제11권 제1호.
채규철, “중국의 대외전략과 향후 대외관계 전망”, 『社會科學研究』, 2013, 52(4).
홍건식, “시진핑의 중국몽과 정체성 정치”, 『국제정치논총』, 제58집 1호, 2018.
한인희, “중·미 양국의 ‘신형대국관계’에 관한 연구”, 『社會科學研究』, 제15권 제1호(통권 42호).

胡鞍钢·李萍, “习近平构建人类命运共同体思想与中国方案”, 『习近平新时代中国特色社会主义思想特别策划』
『胡锦涛文选』(第3卷), 人民出版社.
“习近平首体两个‘引导’有深意” (http://news.china.com.cn/2017-02/20/content_40324193.htm)
“习近平: 让命运共同体意识在周边国家落地生根”, 新華網 (http://news.xinhuanet.com/2013-10/25)
"刘古昌谈习近平访俄: 中俄是新型的大国关系”, 中国网 (http://www.china.com.cn/international/txt/2013-03/22/content)
Figure 2.1.1. Geographic distribution: membership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by country: 2007; Figure 2.1.1. Geographic distribution countries in the greate st number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 2007,
Yearbook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Guide to Global Civil Society Networks: 2008-2009
Yearbook International Organizations, 38th ed.(Brussels: Union of International Associations, 2000/2001)
Ann Kent, *Beyond Compliance: China,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Global Security*; A last air Lain Johnston, *Social State: China in international Institutions, 1980-2000.*

【논문초록】

키워드 Key Words	국문	시진핑, 국제질서관, 혁명, 평화, 운명공동체, 신형국제관계, 변화와 지속성
	영문	Xi Jinping Era, International order view, Revolution, Peace, Community of common destiny, New international relations, Changes, Continuities

Chinese Diplomacy 3.0 : The Continuities and Changes in Xi Jinping Era

Li, Dan

This paper analyzed Chinese diplomacy policies in Xi Jinping Era(Xi Era), and revealed the continuities and changes from the perspective of China's order view. In general, excepting core interests China pursues stable international relations in Xi Era. China's diplomacy framework shows obvious inheritance. Meanwhile notable changes have also taken place. From passive adaptation in the past to positive coping, China's diplomacy now looks more confident. Its specific performance is as follows. First, diplomatic objectives are clearer. China actively promotes diplomacy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with the community of human destiny and new international relations. Second, China emphasizes the common interests among countries in its foreign strategy. Third, China emphasizes the role of China in a more positive view of "taking the initiative"(有为观). What role China will play in the international system in the future will depend on that if China can build strategic mutual trust with its neighboring countries in terms of "kindness"(亲), "sincerity"(诚), "benefit"(惠) and "tolerance"(容), and whether China can reconcile with the interests of the major powers in the region, and how to effectively deal with regional hot issues, etc.

저 자 인적사항	성 명	리단 / 李丹 / Li, Dan		
	소 속	부경대 국제지역학부		
	Em@il	lidan@pknu.ac.kr		

논 문 작성일시	투 고 일	2018년 11월 20일	심 사 일	2018년 11월 26일
	수 정 일	2018년 12월 16일	게재확정일	2018년 12월 21일